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從拔城)’과 고대 부산

백 승 옥*

| 목 차 |

- I. 머리말
- II. ‘任那加羅 從拔城’과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 III. 4~6세기 대의 부산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광개토대왕릉비문 경자년(400)조에 보이는 ‘任那加羅’를 남가라(=가락국)임을 고증하고, 그 從拔城의 위치를 현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수영구에 위치한 배산성(盃山城)과 그 주변 일대로 비정하였다. ‘任那’에서의 ‘任’은 ‘남쪽(南方)’을 가리키는 말임을 『史記』, 『漢書』, 『後漢書』, 『晉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대 중국인들의 ‘任’=‘南方’ 인식은 고구려인들도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능비문의 찬자가 ‘任那加羅’라 한 것은 ‘남쪽에 있는 加羅’를 의미하고 서술한 것으로 보았다. ‘安羅人戍兵’에 대해서는, ‘羅人을 안치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하였다. 羅人은 신라인이 아니라 고구려 군대로

* 국립해양박물관 해양교육문화센터장 / haman100@hanmail.net

보았다. 고구려군이 성을 정복한 후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고대 부산 지역은 신라와의 접경지였다. 따라서 신라와는 언어와 문자, 생활습속 등에서 매우 유사했다. 이러한 양상은 고대 부산 지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6세기 전반 대까지 조영된 연산동고분군은 당시까지도 부산에는 독자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산의 가야 세력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는 6세기 전반 이후의 어느 시기일 것이다.

주제어 : 광개토태왕릉비문(능비문), ‘任那加羅 從拔城’, ‘安羅人戍兵’, 고대 부산

I. 머리말

부산의 市勢나 位相을 감안해 볼 때 부산 역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고대사 연구에 국한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역사 연구가 부진할 경우, 자료의 영세성을 그 이유로 들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부산 고대사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노포동고분군·북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 등의 발굴 조사로 고고학 자료는 비교적 축적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문자 자료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고구려 광개토태왕릉비(이하 능비로 약칭함)는 그의 아들 장수왕이 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능비문에 새겨진 업적에는 경자년(400) 고구려 5만의 군대가 南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군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까지 쳐들어 온 倭를 공격한다. 倭賊은 도망간다. 이 때 고구려군이 왜를 쫓아 도달한 곳이 ‘任那加羅 從拔城’이다. 학계에서는 ‘任那加羅 從拔城’의 위치에 대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능비문 내용의 분석과 연구는 19세기 초 일본인 학자들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任那加羅 從拔城’ 문제에 대해 전문한 것은 1994년

발표된 김태식의 논고이다.¹⁾ 이에서 김교수는 任那=현 창원이며 加羅=현 김해이다. 任那加羅는 두 나라의 합칭으로서, 김해 가야국을 중심한 전기가야연맹의 4세기 후반 당시의 이름이며 존재방식이라고 하였다.²⁾ 이는 김교수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가설에 불과하다. 가설의 성립은 전기가야연맹체의 존재가 확인될 때 가능한데 인정하기 어렵다. 가야제국은 시종 각국별로 존재했기 때문이다.³⁾ 최근 학계의 동향도 가야는 단일연맹체로 존재했던 적은 없으며 가야 각국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가야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의 전시 구성을 보면 가야 제국의 존재양상을 각국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부산지역 발굴 성과를 포함한 학계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任那加羅 從拔城’의 위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군이 ‘任那加羅 從拔城’에 이르자 성은 곧 항복하는데, 항복 후 이어지는 문장이 ‘安羅人戍兵’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절이 ‘任那加羅 從拔城’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한 최근의 연구를 보더라도 여전히 百家爭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⁵⁾

II장에서는 ‘任那加羅 從拔城’과 ‘安羅人戍兵’에 대해 검토해 볼 것

1) 김태식,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2) 김태식, 위의 논문, 107~108쪽.

3) 백승옥,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2003. 이영식, 『가야 제국사 연구』, 생각과종이, 2016.

4)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 학술도록』, 2019, 114~190쪽 참조.

5) 신가영,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재해석』, 『東方學志』 178, 2017.

이다. Ⅲ장에서는 4~6세기 대 부산 지역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접경지로서의 부산과, 부산 지역이 신라에 복속되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내용 중에는 추론의 부분이 많아 다소 무리한 해석의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 내린 결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이는 부산 고대사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사료 확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능비문이 고대사 복원의 일급 사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사를 넘어 가야사와 한국고대사 복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Ⅱ. ‘任那加羅 從拔城’의 위치와 ‘安羅人戍兵’

1. ‘任那加羅 從拔城’의 위치

능비문은 고구려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나아가 4~5세기 대 동아시아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특히,倭에 관한 기록이 나오므로 해서, 일찍 부터 일본 연구자들은 이를 활용해 왔다. 가야사 연구가 사료의 영세성 때문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능비문의 가야 관계 기록은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비록 단편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비문의 내용에, ‘경자년(400)에 고구려가 任那加羅 從拔城에까지 이르는 기사가 있다.

사료 1)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

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來背急追至 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④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滿倭潰城□□盡更□來⑤安羅人戍兵滿
 □□□其□□□□□□言□□□□□□□□□□□□□□□□□
 □□□□□□□辭□□□□□□□□□□□□潰□以□□⑥安
 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開土境好太王□□□
 □寐錦□□僕勾□□□□朝貢.⁶⁾

[십년 경자(400년)에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지나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가득 차 있었다. 고구려군이 이르니 왜적은 물러나고 …결락… 뒤를 쫓아가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했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 신라성… 성. 왜가 가득했는데 그들을 패멸시키고,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옛날 신라의 매금이 직접 온 적이 없었는데, …광개토경호태왕…매금…복구(僕勾)…조공]

‘任那加羅從拔城’은 단 7자로 된 문장이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다. 먼저 이 7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볼 것인가이다. 앞의 ‘追至(쫓아가서 이르다)’와 뒤의 ‘城即歸服(성이 곧 항복했다)’의 문장 구조와 내용으로 보아 ‘任那加羅從拔城’은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몇 개의 단어로 나누어 볼 것인가이다. 많은 사료들에서 ‘任那’와 ‘加羅’는 별개의 지명 혹은 국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加羅任那’로 표기된 경우도 있거니와⁷⁾ 『宋書』의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와 같이 국의 숫자를 명기한 속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두 곳의 지

6) 判讀文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재단법인 가락국사 적개발연구원, 1992, 12쪽 등을 참고함.

7) 『翰苑』 卷30, 蕃夷部, 新羅條, “地惣任那[齊書云 加羅國三韓種也 今訊新羅耆老云 加羅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此新羅有辰韓下辰二十四國 及任那加羅慕韓之地也].” 『通典』 卷185, 邊防門1, 東夷上, 新羅國條, “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 其西北界犬牙出高麗百濟之間.”

명 혹은 국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任那加羅從拔城’은 ‘任那’+‘加羅’+‘從拔城’이 될 것이다. ‘從拔城’에 대해서도 나누어 볼 여지를 두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문제는 ‘任那’와 ‘加羅’이다.

任那가 처음 나오는 자료는 바로 위의 능비문이다. 그 외 한국 측의 기록에는 新羅 景文王 8년(924)에 건립된 鳳林寺 眞鏡大師寶月凌空塔 碑文과 『三國史記』 強首列傳에 보인다. 전자에서는 ‘其先任那王族(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으로 후자에서는 ‘臣本任那加良人(신은 본래 임나가량인)’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⁸⁾ 중국 사료에는 487년 편찬된 『宋書』 倭國傳의 4例, 『南齊書』 왜국전(1), 『梁書』 왜전(1), 『南史』 왜국전(5), 『通典』 신라전(1)에 나온다.⁹⁾ 중국 사료에서는 임나와 가라를 별개의 나라로 보고 있다. 일본 사료에도 임나가 수없이 나온다. 임나의 借字인 彌摩那, 御間名 등을 합하여 『日本書紀』에 216例, 『新撰姓氏錄』에 12例가 나오고 있다. 『일본서기』에서의 임나는 崇神紀에 “任那國이 소나갈 질지를 보내 조공하였다.”라고 처음 보이며, 孝德紀에 “任那의 調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다.¹⁰⁾

그런데 능비문의 任那加羅와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보이는 임나가량의 경우 전후 문맥으로 보아 둘로 나누어 보기 어렵다. 능비문의 경우 뒤의 종발성이 하나의 성이기 때문에 임나와 가라의 종발성으로 볼 수는 없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능비문에서의 임나가라는 하나의 국으로 보아야 한다. 강수가 본인의 출신지라고 말하는 ‘任那加良’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용례가 임나와 가라 2국으로 나타나지만 임나가라를 하나로 묶어 볼 수밖에 없는 용례도 존재하

8) 『삼국사기』 권46, 열전 6, 강수.

9) 통계는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3쪽을 인용했다.

10) 백승옥, 「‘임나일본부’의 소재와 등장 배경」, 『지역과 역사』 36, 2015, 97쪽.

는 것이다. 더욱이 능비문의 예는 초출 기사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임나가라의 위치는 어디일까? 任那는 가야지역을 통칭, 혹은 범칭하는 경우와 가야의 어느 한 지역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넓은 의미의 임나 위치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보아 낙동강 우안을 중심으로 한 가야제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만 있을 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서기』의 용례로 보아 임나를 넓은 의미로 본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용례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좁은 의미의 임나(즉 한 특정지역)에서 출발하여 전 가야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용례가 전용되었다고 생각된다.¹¹⁾

학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임나 위치에 대해서 김해로 보는 경우와 고령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김해로 보는 설의 유력한 근거자료는 봉림사 진경대사보월릉공탑비문의 주인공인 審希가 新金氏로서 그 선조가 임나왕족이고 遠祖가 金庾信의 追封名인 興武大王이라는 기록을 든다. 그리고 『일본서기』 崇神紀 65년 7월조의 “임나는 축자국으로부터 바다를 격해 북으로 이전 여리 떨어져 있고, 계림(신라)의 서남쪽에 있다(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 以在鷄林之西南).”라는 기사도 임나를 김해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¹²⁾ 이로 보면 좁은 의미의 임나는 김해 가락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任那를 고령으로 보는 설의 근거는 『삼국사기』 대가야의 멸망 연대인 신라 진흥왕 23년(562)이 『일본서기』의 임나 멸망 연대인 흙명 23년(562)과 일치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欽明紀 임나 멸망기사에서의 임나는 그 細注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야지역 전체를 임나라고 총칭하던 일본의 후대적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¹³⁾ 그것이 『삼국사기』 대가

11) 백승옥,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4, 2019, 177쪽.

12) 백승옥, 앞의 논문, 2015, 97쪽.

야 멸망 연대와 일치한다고 해서 곧 임나가 고령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4~6세기 대 동북아시아의 경우 동명이국의 경우가 많았다. 가야지역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었다. 기문의 경우는 3곳이나 있었다. 가라는 2곳이 있었다. 김해와 고령의 가야세력들은 그 국명을 모두 가라라고 하였다.¹⁴⁾ 이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는 구분할 장치가 필요했다. 이때 고령은 그냥 가라라고 쓰고 김해가야의 경우는 남가라라고 하였다. 다음의 사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료 2) : 그 후 모두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부수고 이로서 比自
 焮,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
 정했다.¹⁵⁾

任那加羅의 위치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나의 語義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임나의 語義에 대해서는 ‘임의 나라’, 즉 主國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御間城 유래설 등이 있어 왔다. 김태식은 창원에 소재했던 卓淳國의 4세기 이전 국명이 彌烏邪馬國인데 이가 곧 任那國이라 하였다.¹⁶⁾ 임나를 일본어 음으로 ‘미마나’라고 읽는데 미오야마와의 음상사를 고려하여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가라에 대해서는 干의 나라 유래설, 冠幘의 尖頭을 ‘弁’이라고도 하고 ‘駕那’라고도 한다는, 이른바 冠幘 유래설,¹⁷⁾ 등이 있다. 여

13) 백승욱, 앞의 논문, 2015, 98쪽.

14) 백승욱,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70~79쪽.

15)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49년(376),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焮・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

16)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107쪽.

17) 정약용, 『我邦疆域考』, 1811.

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의 어의보다는 임나의 어의이다. 가라는 국명임이 분명함으로 임나가라에서의 임나는 가라에 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능비문에 새겨진 임나가라는 임나가라인들이 자칭하던 것이 고구려에 전해져 그렇게 불리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출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능비문의 임나가라는 고구려인의 시각에서 불렀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의 사료 2)를 다시 보면 임나가라는 남가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임나=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사료 3)-①: 正義 白虎通云: ‘南任也 言陽氣尙任包 大生薺麥也.’¹⁸⁾

사료 3)-②: 南呂: 南任也 言陰氣旅助夷則任成萬物也. ~ 太陽者
南方 南任也 陽氣任養物 於時爲夏.¹⁹⁾

사료 3)-③: 鄭玄注周禮云: 四夷之樂 東方曰韎 南方曰任
西方曰朱離 北方曰禁.²⁰⁾

사료 3)-④: 鄭玄注云: 東方曰韎 南方曰任 西方曰朱離 北方曰禁.²¹⁾

사료 3)-⑤: 八月之管名爲南呂 南者任也.²²⁾

사료 3)-①은 『史記』의 律書에 나오는 구절이다. 6律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6율은 萬事の 根本이라 하고 있다. 양의 6율과 음의 6율로 나누면서 음의 6율 가운데 南呂가 있다. 南呂에 대한 설명에서 『史記』 正義는 白虎通을 인용하면서 ‘南’을 ‘任’이라고 하고 있다.²³⁾

18) 『史記』 卷25, 律書 3.

19) 『漢書』 卷21 上, 律曆志 1 上.

20) 『後漢書』 卷40 下, 班彪列傳 30 下.

21) 『後漢書』 卷51, 陳禪列傳 41.

22) 『晉書』 卷22, 志 12 樂 上.

23) 『史記』 卷25, 律書 3, “王者制事立法, 物度軌則, 壹稟於六律 六律爲萬事根本焉.

주지하는 바와 같이 『史記』正義는 사기집해, 사기색은과 함께 『史記』三家注라 불리며 30권으로 이루어진 주석서이다. 唐 開元 24년(736) 張守節이 저술하였다. 白虎通은 後漢 班固가 편찬한 經書이다. 後漢의 章帝가 白虎觀에 학자들을 모아 五經의 해석 차이를 논한 내용을 반고가 정리한 것이다. 『漢書』에서도 이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사료 3)-②]. 『後漢書』의 班彪列傳과 陳禪列傳에 ‘任’이 ‘南方’을 가리키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후한 鄭玄의 注를 인용하면서 ‘南方曰任(남방은 임이다)’이라 하고 있다[사료 3)-③과 ④]. 唐代(646년) 房玄齡 등이 편찬한 『晉書』의 樂志에서도 ‘南者任也(남은 임이다)’라 하고 있다[사료 3)-⑤].

위의 사료들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고대 중국인들은 남방을 任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6律에서도 남방을 任이라 하고 있으며, 특히 四夷의 음악에서 ‘南方’을 ‘任’이라 하고 있음은 주목된다.²⁴⁾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고구려에도 전해 졌을 것이다. 특히 능비문 작성자는 당대 고구려 최고의 지식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능비문의 작성자가 漢文化 습득자였음은 능비문 내용이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⁵⁾ 소수림왕 2년(372) 太學의 설립은 고구려에서 지속적으로 한학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리고 『南齊書』에서는 고구려인들이 『五經』을 알고 읽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²⁷⁾ 『周書』에서는 고

索隱按：律有十二 陽六爲律 黃鍾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陰六爲呂 大呂 夾鍾 中呂 林鍾 南呂 應鍾是也。(중략) 八月也 律中南呂 南呂者 言陽氣之旅入藏也。”

24) 『後漢書』卷40 下, 班彪列傳 第30 下.

25) 백승욱,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60~63쪽.

2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소수림왕 2년 6월조.

27) 『南齊書』卷58, 列傳 39, 東夷, 高句麗國條, “高麗俗服窮袴 冠折風一梁 謂之幘 知讀五經”

구려의 서적으로 『五經』과 『三史』, 『三國志』, 『晉陽秋』 등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²⁸⁾

川崎晃의 연구에 의하면 능비문 작성자는 『史記』와 『漢書』, 『三國志』, 『毛詩』, 『易經』, 『左傳』, 『孟子』 등의 중국 문헌을 충분히 답습한 사람이라고 한다.²⁹⁾ 능비문에 보이는 ‘昊天不弔’은 『左傳』 哀公 16년조에 보이고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능비문 1면 3행 41자~1면 4행 4자에 보이는 ‘履龍首昇天(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다)’은 後漢 和帝의 딸인 汝陽公主가 죽었을 때 崔瑗이 쓴 哀辭에 보이는 ‘駕龍乘雲(용을 타고 구름 위로 오르다)’ 구절과 유사하다.³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능비문 작성자가 ‘任那加羅’를 남쪽에 위치 해 있는 가라, 즉 남가라를 의미하고 문장을 작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나가라는 ‘남쪽 땅 가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那는 羅와 같으며 壤, 地를 의미한다. ‘임나가라’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보이는 ‘남가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국명이다. 이가 분리되어 임나와 가라로 불리게 된 것은 또 하나의 가라가 있기 때문에 남가라는 그냥 임나라고만 불러도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그 분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宋書』 東夷傳의 倭國條이다.

사료 4) : 倭國 在高麗東南大海中 (중략)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 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중략) 二十年 倭國王濟 遣使奉獻 復以爲安東將軍 倭國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중략) 興死 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중략) 詔除武 使持節都督 倭新羅任

28) 『周書』 卷49, 列傳 41, 東夷, 高句麗條, “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29) 川崎晃,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古代國家の歴史と伝承』, 吉川弘文館, 1992.

30) 劉懿 저, 최동호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172쪽 참조.

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³¹⁾

이는 왜 5왕(讚·珍·濟·興·武) 관련 기사이다. 왜왕 珍은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자칭하지만 宋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백제를 제외한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將軍’을 허락할 뿐이다. 모두 허상의 문서 노름에 불과하지만, 宋의 입장에서는 백제와의 국교 관계로 인해 왜의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었다. 대신 송은 왜가 요구한 6국 제국사의 요망을 채워주는 방편으로 ‘加羅’를 삽입한다. 이때 가야지역에는 2개의 가라국을 포함한 諸國이 존재했다. 2개의 가라를 구분하기 위해 표기할 경우, 임나가라와 가라 혹은 남가라와 가라로 표기했다. 전자의 경우가 능비문과 강수열전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가 신공기 49년조에서 보인다.

4세기 대 이전까지 왜는 내륙의 가라(대가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같다. 왜는 전통적으로 선진문화의 수입처이면서 중국과의 중개지로서의 임나가라(=남가라)에만 관심이 있었다. 내륙 가라(=대가야)와의 교류는 5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활발해 진다. 왜가 대가야를 눈여겨 본 것은 중국의 宋이 백제 대신 삽입한 가라의 존재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宋은 고구려와 백제를 제외한 한반도 諸國을 우대하거나 외교적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그 모습을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將軍’의 허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는 이를 국내외적으로 활용하여 그 위상을 높였을 것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400년 고구려군이 도망가는 왜적을 쫓아 간 임나가라는 남가라로서 가락국(=금관가야)이다. 그러면 종발성의 구체적 지점은 어디일까? 그동안 임나가라를 남가라로 본 논자들 중에는 종발성을 김해의 분산성으로 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분산성에 대한 발굴 결

31) 『宋書』 卷97, 列傳 57, 東夷, 倭國條.

과 성내에서는 5세기 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수영구 경계 북서-남동향으로 위치한 배산(서봉 254m, 동봉 246m) 정상부에 위치한 배산성지와 그 주변 일대의 유적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배산 북쪽 능선의 표고 40~60m 상의 연산동고분군(연제구 연산동 산90-4번지 일대)에서 능선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성지가 있다. 배산성지(盃山城址)이다. 盃는 잔을 의미하는 글자이고 잔은 우리 말 보시기 또는 종지의 방언인 종발이와 통한다. 종발이는 경상도 방언이다. 종발성의 ‘종발’과 음이 서로 같다.

배산성의 발굴 결과 가야산성이라기 보다는 축성 기법이 신라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출토된 기와 등으로 보아 성의 중심연대도 통일신라시대라고 한다.³²⁾ 아마도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 왜적의 방비를 위해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종발성의 위치를 이곳에 비정하고자 한다. 배산성이 가야성이 아님은 당연하다. 임나가라(남가라)와 왜는 전통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왜를 방어할 목적으로 이 곳에 성을 쌓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가야시기 유적은 배산의 동남 기슭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배산성의 정상부에서는 사방을 조망하기가 매우 좋다. 특히 남쪽으로는 동, 남해 조망이 용이하다. 바다로부터 침입해 오는 왜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부산의 중심 치소가 현 동래로 이전하기 전까지 부산 고읍성도 배산의 동남 기슭에 위치해 있었다. 고읍성 동쪽 하단부에 수영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곳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구멍이기도 하다. 왜적이 동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했다. 현재는 도시화되어 그 흔적을 쉽게 찾기 어렵지만

32)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盃山城址 I-2017년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167쪽.

지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곳 일대는 마치 강변을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성 같다. 강을 내려다보면서 왕래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기 쉬운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포구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동래 해운포가 바로 이곳이다.³³⁾ 지금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수영동 민락동 일대이다. 비록 후대의 사실이긴 하나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임은 조선시대 慶尙 左水營이 이곳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³⁴⁾

임나가라(=남가라)와 왜는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왜가 신라의 서라벌(=경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나가라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도움은 바다를 건너왔을 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부두의 제공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왜의 신라 진공은 임나가라의 의도와 조종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3세기 후엽~4세기 전반 무렵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의 결과는 신라의 남해안 진출을 허용하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임나가라와 신라의 갈등은 고조되어 갔을 것이다. 이에 임나가라는 왜의 힘을 빌어 신라를 제압하려는 전략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울산은 이미 신라의 영역이었다. 울산은 신라 서라벌로의 진격에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이지만 왜가 이용할 수는 없었다. 왜는 자연히 임나가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경주로의 진격에 편리한 곳을 택했을 것이다.

교통로를 감안해 보면, 4세기 후반 경주에 침입한 왜적은 바다에서 수영강을 거슬러 올라가 동래를 거쳐 노포동-울산-경주, 또는 동래-양산-경주의 경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33)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跡條, “~古邑城 在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三百三十尺 今頽廢~.” 『여지도서』, 慶尙道 東萊都護府 古跡條, “~古邑城 在府東 二十里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三百三十尺 今頽廢~.”

34)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수영구, 『慶尙左水營城址-북문지 일원-』, 발굴보고서, 2016.

경주에서 고구려 군에 쫓겨 도망한 곳도 그 최종지는 수영천이 入海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임나가라 중발성은 배산성과 그 동남쪽 일대를 포함한 지역 모두를 지칭했을 것이다.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북천동고분군 축조 세력의 주거지역까지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현 동래시장 일대에서 수영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배산성지 동남 산기슭까지 형성된 촌락 모두를 능비문에서는 ‘任那加羅 從拔城’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1> 배산성지와 주변
항공사진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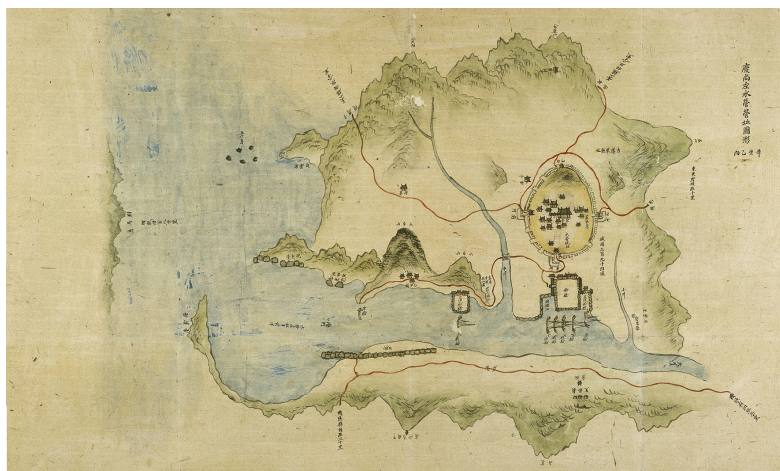
<지도 1> 배산성지와 주변유적 위치도³⁶⁾

35) ①북천동고분군 ②조선전기 동래읍성 ③조선후기 동래읍성 ④동래패총 ⑤연산동고분군 ⑥동래고읍성 ⑦경상좌수영지.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세구청, 위의 보고서, 2019, 7쪽에서 가져 옴.

36)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수영구, 앞의 보고서, 2016, 17쪽에서 가져 옴.



<사진 2> 수영강과 배산성지, 경상좌수영지 및 주변 제유적지³⁷⁾



<고지도 1> 경상좌수영 營址圖形(1872년 군현지도 - 채색필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7)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앞의 보고서, 2019, 100쪽에서 가져 옴.

2. ‘安羅人戍兵’의 해석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庚子年(400년)에 步騎五萬을 보내 倭에 의해 위협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고 한반도 남부 임나가라에까지 진출한다. 지금의 부산이다. 능비문에는 성이 항복해 오자 ‘安羅人戍兵’ 했다는 기사로 이어 진다. 이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아 지금의 함안 지역에 존재했던 안라국(=아라가야)으로 보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한 해석은 安羅를 고유 명사로 보지 않고 ‘安’을 동사로 보는 경우이다.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도 安羅人戍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설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安羅인의 지키는 군대’로 보아서 임나를 지배하는 왜군 장군이 통솔하고, 安羅인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보는 경우이다.³⁸⁾ 이른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왜의 임나 통치를 역사적 사실로 보는 일본학계 구설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安羅人戍兵을 함안 安羅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이들을 ‘任那日本府의 傭兵’으로 보지 않고 ‘백제를 돕는 동맹군’ 또는 ‘고구려·신라 연합군에 맞서는 군대’로 보는 견해이다.³⁹⁾ 셋째는 ‘고구려군을 돕는 동맹군’으로 보는 설이다. 앞의 설들이 모두 고구려 군대에 맞서는 성격의 군대로 본 것과는 달리 安羅의 군대

38) 管政友,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1891, 49~50쪽. 那珂通世,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1893, 33쪽.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74쪽.

39) 金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1966 ;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1988, 406쪽. 千寬宇, 『復元加耶史』(叢), 『文學과 知性』 29, 1977 ;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27쪽. 金廷鶴,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 1983, 5쪽. 李永植,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白山學報』 32, 1985 ;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171~172쪽. 延敏洙,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東國史學』 21, 1987, 23쪽. 朴진석,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1993, 81쪽.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1993, 99쪽.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36쪽.

가 고구려군과 동맹하여 백제-왜-임나가라군과 싸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⁴⁰⁾

‘安羅人戍兵’에서의 安羅를 함안의 安羅國으로 보는 설을 부정하고 ‘安’을 동사로 보아 ‘安’과 ‘羅人戍兵’을 띄워 읽는 해석의 시초는 중국의 王健群이 열었다. 그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安羅人戍兵’을 임나일 본부의 용병이라고 한 해석을 억측이라 하면서 이 부분의 해석을 ‘(고구려 군대가 어떤 城을 탈취한 후) 신라인을 안치시켜 戍兵把守했다.’로 해석하였다.⁴¹⁾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高寬敏은 ‘고구려가 巡邏軍을 안치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하였다.⁴²⁾ 김태식은 고관민의 설을 더욱 보강하는 논고를 내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高寬敏說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延敏洙는 고구려가 자국의 군대를 ‘羅人’이라는 3인칭적 표기법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능비문에 의거하는 한 고구려 군대는 王師 또는 官軍이지 羅人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고관민의 羅人=高句麗 巡邏兵說을 반박하였다.⁴⁴⁾

이 부분은 앞뒤로 비면의 훼손이 심해 글자를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능비문 내용에 입각해 해석해 보면 ‘安’을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인다. 安羅人戍兵은 능비문에 세 번 나타나는데, ㉑의 경우는 앞 뒤 결락이 심하여 잘 알 수 없지만, ㉒와 ㉓의 경우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㉓의 경우는 安羅人戍兵 다음 문장이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로 되어 있기 때문에 ㉓의 뒤에서 끊어 읽어야만 문맥이 통한다. ㉒의 경우는 앞쪽과 뒤쪽 어디에 끊어 읽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앞쪽에서 끊어 읽으면 ‘安羅人戍兵’이

40) 남재우, 『안라국사』, 해안, 2003, 153~154쪽.

41) 王健群 저, 임동석 역편,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5, 266~268쪽.

42) 高寬敏,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의 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1990.

43) 金泰植, 앞의 논문, 1994, 86~105쪽.

44) 延敏洙,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對外關係」, 『韓國古代史研究』 10, 1995, 245쪽.

주어가 되어 이하의 문장을 이끌게 되는 문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럴 경우 해석은 ‘安羅人戍兵이 新羅城과 □城을 빼앗고, 倭寇를 크게 궤멸시키고 ----’로 된다. 이는 매우 어색하다. 왜냐하면 신라성은 이미 고구려 군에 의해 왜적이 쫓겨난 상태인데, 다시 安羅國의 군대가 신라성을 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戰線도 경주 근처가 아니라 부산의 임나가라 주변이다. 또한 능비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광개토태왕의 훈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안라국의 업적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㉔는 뒤쪽에서 끊어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㉔의 해석은 ‘(고구려군이)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자 城이 곧 귀복해 오므로 羅人戍兵을 安置하였다.’로 하여야 할 것이다.

‘安’을 동사로 볼 경우, ‘羅人’을 新羅人으로 볼 것인가, 高句麗人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들이 있다. 5세기 대 고구려가 남부 지방에 그들의 군대를 파견 또는 주둔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료들이다. 『삼국사기』 박제상전⁴⁵⁾을 위시한 中原 高句麗碑에서의 ‘新羅土內幢主’, 『일본서기』 웅략기⁴⁶⁾ 속에서의 구체적 사실 등이다. 이로 보아 고구려 군이 신라 영토 내에 주둔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군이 배치된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능비문 속에서 찾아야 하지만 그 위치가 있을만한 곳에 결락이 심하여 쉽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능비문에서 ‘安羅人戍兵’과 관련된 곳이 3곳이다. 하나는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부분이다. 고구려군이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왔고 성이 곧 항복해 오자 그곳에 나인수병을 안치했다. 고구려군은 임나가라

45)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謔言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并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46) 『일본서기』 권14, 웅략8년(464) 봄 2월조, “八年春二月 遣身狹村主青 檜隈民使博德 使於吳國 自天皇即位 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高麗王 遣精兵一百人守新羅.”

의 종발성에 주둔했던 것이다. 또 한 곳은 ‘拔新羅城□城 倭寇大潰城□□□盡□□□ 安羅人戍兵’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安羅人戍兵’의 앞쪽이 결락되긴 했으나 첫머리의 ‘拔新羅城□城’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신라 영토 내, 혹은 경주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짐작된다. 마지막 한 곳은 ‘安羅人戍兵’만 명백할 뿐 그 앞뒤의 모두가 결락되어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다만 앞의 ‘安羅人戍兵’과의 사이에는 59字(이 중 관독 가능자는 5字)나 되는 많은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군사적 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신라 지역 혹은 임나가라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일 수 있음을 추측 가능케 한다. 고구려 군이 낙동강을 넘어 남해안 지역까지 진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신가영은 ‘安羅人戍兵’에 대한 기존 해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고구려의 400년 남정은 신라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사건으로 파악하였다.⁴⁷⁾ 그는 ‘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을 ‘羅人(=신라인)를 두어 城을 지키게 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영락 10년조가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기사라는 점에 착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安羅’를 고유명사, 즉 함안의 안라국(=아라가야)으로 볼 수 없다는 설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능비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수왕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 천하관이 반영된 고구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능비문에 점령지 통치를 상징하는 점령군을 신라인으로 하였다면 세 번이나 강조하였을까는 의문이다. 오히려 능비는 먼 남쪽의 바다에 다다른 곳까지 고구려 군대를 주둔시킨 위업을 보이하고자 ‘나인수병’을 강조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사정은 가야 지역에 군대를 주둔할 만하

47) 신가영, 앞의 논문, 2017, 1~26쪽.

사정이 되지 못했다. 400년은 내물왕 45년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이해 8월에 살별(孛星=彗星)이 동쪽에 나타났다. 10월에 왕이 타던 대궐 안 외양간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402년 내물왕은 돌아가고, 앞서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돌아온(401년) 실성이 즉위한다. 내물의 아들이 어리므로 나라 사람들이 실성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⁸⁾

Ⅲ. 4~6세기 대의 부산

1. 신라 접경지 부산

부산 지역은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이다. 그러나 고대의 경우 국경의 개념은 모호했으며 명확하지도 않았다. 4세기 대 이후 부산 지역과 신라와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하나 사료의 영세성으로 인해 쉽지 않다. 중국의 역사서인 『三國志』에는 비록 3세기 중엽 이전의 상황이지만 두 지역 간을 비교 할 수 있는 사료들이 보이고 있다. 변한이 성장하여 가야 제국이 되고 진한 제국이 성장 발달하여 신라가 되기 때문에 비교 사료로 활용해도 대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야와 신라 생활문화의 차이를 검토해 봄으로서 부산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 보고자 한다.

『삼국지』는 가야와 신라의 전신인 변한과 진한이 서로 섞여 살며 성곽이 있으며 의복과 거처가 같다고 하고 있다(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 與辰韓同). 그리고 『北史』, 『隋書』, 『舊唐書』 列傳의 신라 기사(其風俗刑政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와 같은 문헌 기록을

4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 내물대왕 45~47년조, 실성대왕 원년조.

통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대략 같은 형태의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했던 가야도 비슷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 계체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와 대가야 사이의 결혼동맹 이후 옷을 바꿔 입는 이른바 변복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양자 간에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복식의 차이로 보인다. 『양직공도』 등에 보이는 삼국 사신의 옷차림새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대체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 생산은 모든 문명과 문화가 생성·발전하는데 선행조건이다. 식량이 문화의 형성에 직접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작용한다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임은 분명하다. 인류의 식량으로는 식물과 동물이 있으며, 인위에 의해 작물화된 식물과 가축화 된 동물이 있다. 동식물 모두 가공과 저장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도 했다.

『삼국지』 변진조에는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가 잘 되었다(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지역에는 일찍부터 작물이 재배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곡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의 오곡은 조(黍), 기장(稷), 콩(菽), 보리(麥), 삼(麻; 대마의 씨)를 말한다. 이 시기에 벼(稻)는 오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곡과 벼(五穀及稻)’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야 지역 여러 곳에서 이러한 작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와 기장은 산청 소남리와 김해 부원동의 생활유적과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김해 부원동유적에서는 콩과 보리, 복숭아씨도 발견되었다. 물고기 뼈, 닭 뼈 등의 음식물 잔재도 확인되었다. 고령 지산동 34, 45호분 출토의 것이 있으며 이는 신라지역인 경산 조영동에서도 출토되어 양 지역 간의 음식물 문화의 동일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

역도 대동소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지』의 진한기사를 보면 진한과 마한의 언어가 서로 같지 않고 하고 있다(辰韓在馬韓之東~其言語不與馬韓同). 그리고 그 같지 않음의 실례를 들고 있다(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반면, 진한과 변한의 말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고 있다(弁辰與辰韓~言語法俗相似). 서로 유사하다고 함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삼국지』를 이어 당시 한반도 남부지방의 사정을 기록한 『後漢書』의 경우는 진·변한의 말이 다른 점이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진한과 변한의 언어에 대해서 『삼국지』와 『후한서』가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언어에 빗대어 보아도 설명은 가능하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말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크게 보면 같지만 부분적 억양이나 물건에 대한 이칭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권44, 열전4 사다함전을 보면 신라가 가라를 공격함에 있어 사다함이 용감히 먼저 전단량(旃檀梁)으로 들어가는 설명이 있다. 이때 『삼국사기』 찬자는 전단량을 설명하는 注에서 전단량은 성문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가라의 말에 문을 양이라고 했다고 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신라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는 차이가 있는 가라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야말을 문자로 새겼던 터이지만, 가야인들이 문자 생활을 한 흔적은 미미하다. 이는 사회발전 정도가 거의 비슷하였다고 생각되는 6세기 전반 대 신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이 시기 신라의 碑로는 포항 중성리비(441년 또는 501년), 영일 냉수리비(지증왕 4년. 503년), 울진 봉평비(법흥왕 11년. 524년), 영천 청제비(법흥왕 23년. 536년) 등이 있다. 그런데 가야의 경

우 내세울 만한 비가 없다. 다만 가야인들이 토기에 새긴 명문은 보인다.

합천 저포리 E지구 제 4-1호분 출토의 단경호 구연부에 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토기는 대가야계로 6세기 중엽 무렵 만들어진 것이다. 명문의 내용은 ‘하부사리리(下部思利々)’로 판독되는데, 하부(소속)의 사리리라는 인물로서 토기제작자나 피장자의 이름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하부라는 설도 있지만, 우륵 12곡의 하가라도를 참조한다면 가라의 하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6세기 대 세워진 신라비에도 인명의 끝에 利로 끝나는 인명이 보이고 있어 비교된다. 포항 중성리비에는 斯利, 夷斯利, 壹斯利. 果西牟利 등의 인명이 보이고, 냉수리비에는 珍而麻村 節居利가 보인다. 봉평비에도 尼牟利, 奈尔利, 奈等利, 於卽斤利 등의 인명이 보이고 있다. 또한 신라 육부 촌장 중 고허촌장의 이름도 蘇伐都利이다.⁴⁹⁾ 이로보아 利는 인명의 끝에 붙이는 어미인 것 같다. 그런데 가야인과 신라인 모두에 보이고 있어 양국 간의 인명 표기 방식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산청 하촌리 IB지구의 삼국시대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파수부완(기고 8.7cm, 구경 15.1cm, 저경 11.5cm)의 내면에 ‘二得知’라고 새겨진 명문이 있다. 대가야계 토기이며, 6세기 초로 편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득지”는 인명으로 보이는데, ‘知’는 존칭어미이다. 知와 智는 같이 쓰인다. 斯德智 · 尔抽智 · 壹金智(이상 포항 중성리비), 斯夫智 · 乃智 · 子宿智(이상 영일 냉수리비), 毛麻利叱智(『일본서기』 신공기 섭정 5년조) 등 신라인의 이름에 다수 보인다.

가야인의 이름으로서 존칭어미 지(智, 知)를 사용한 예는 道設智와 訖乾智가 있다. 도설지는 대가야 마지막 왕의 이름이다.⁵⁰⁾ 흘건지는 544년 백제의 수도 사비에서 열린, 이른바 가야부흥회의(사비회의)에

49) 『삼국유사』 권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50)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군 건치연혁조.

참가하는 多羅國의 二首位인 흘건지이다.⁵¹⁾ 존칭어미지(智, 知)는 신라인과 가야인 모두 사용한 것이다.

『삼국지』의 기록에는 진한과 변한이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다(祠祭鬼神有異). 그리고 변한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데 그 뜻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변진한의 차이는 곧 가야와 신라인들이 제사를 지냄에 있어



<사진 3> 二得知 명문 토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유적(Ⅰ지구)』, 502쪽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사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만한 문헌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서기』 흠명기 5년(544) 춘정월의 기록에 백제가 가야에 사신을 보내어 가야의 집사와 일본부 집사를 오라고 하자, 神에게 제사지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마치면 가겠다고 하고 있다(‘百濟國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 이로 보아 가야에는 해마다 정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매년 여섯 차례씩 5묘에 제사하는데 정월에는 2일과 5일, 5월 5일, 7월 10일, 8월 1일과 15일이었다.⁵²⁾ 정월에 제사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 그

5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544) 11월조.

52) 『삼국사기』 권32, 잡지 1, 제사조.

의식의 내용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제사의 흔적은 제사용 유물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복골과 소형 토제품 등이 있다. 복골은 노루, 돼지, 사슴의 견갑골·늑골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김해 봉황대유적, 사천 늑도유적·고성 동외동유적·함안 성산산성·창원 신방리유적, 기장 고촌유적 등에서 다량의 복골이 출토되었다. 『삼국지』 부여조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蹠以占吉凶 蹠解者爲凶 合者爲吉)’라고 보이고 있어 고대 한반도에는 복골로서 길흉을 점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용 소형 토제품은 흙을 손으로 간단하게 빚어 실물 보다 작게 만든 제사용 유물이다. 김해 부원동유적과 동래 낙민동유적에서는 수날제작 토제품과 함께 복골, 말모양토기, 토제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고성 내산리고분에서는 토제 곡옥이, 사천 늑도유적에서는 원반형 석제품과 함께 수날제작 토제품이 출토된 바 있다.

가야인들은 순장을 했다. 그러나 순장이 가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여의 경우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여 명까지 순장을 한다고 하였다.⁵³⁾ 신라의 경우 6세기 초가 되면 영을 내려 순장을 금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3년(502)조에 그 내용이 보인다. ‘을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지하였다(下令禁殉葬 前國王薨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순장 소멸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보다는 불교 등의 고등 종교의 전파로 인한 내세관의 변화와 순장이 非禮 혹은 不良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일

53)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 “殺人殉葬 多者百數.”

것으로 본다. 이후 직접적인 人殉은 사라지고 이에 대신하여 토용의 매납이 시작된다. 가야의 경우 문헌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가라, 가라, 안라국의 경우 순장이 행해졌다.

『삼국지』 변진조의 기록에 편두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編 今辰韓人皆編頭). 이 기사는 변진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편두를 하는 방법의 설명 후 진한인들이 모두 편두를 한다고 하고 있어 약간의 착종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4세기 대 가야의 분묘 유적인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편두 유골이 다수 확인되면서 변한인들도 편두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의 기사는 진변한인 모두 편두를 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변진과 진한의 생활 습속을 주로 『삼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대부분 거의 같은 문화를 형성하며 생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대 부산과 신라 지역의 문화 양상이 유사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문화양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정치적 복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라로의 복속 시기

고대 부산지역이 신라로 편입되는 시기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문헌과 고고자료 모두 존재하지만 양쪽 모두 불완전한 면이 있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4 거도전에는 현재의 울산으로 비정되는 우시산국과 부산으로 비정되는 거칠산국이 신라에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사료 5) : “거도는 그의 가게와 성씨가 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 이사금 때 벼슬하여 간(干)이 되었다. 그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국경의 이웃에 끼어 있어서 자못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그곳을 병합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여러 말들을 張吐 들판에 모아 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유희 놀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 놀이를 ‘마기(馬技)’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자주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⁵⁴⁾

이 사료는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 기사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신라 탈해왕 대(재위기간: 57~79)인 1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부산의 거칠산국은 이미 1세기 대 신라에 편입된 것이 된다.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삼국지』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유물상 등을 고려해 볼 때 3세기 이전에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⁵⁵⁾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은 3세기 중엽까지 경주분지를 벗어나 영토를 확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4세기 대 이전의 기록은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초기기록을 신빙하는 입장에 있는 대표적 논자인 이종욱은 거칠산국의 위치를 울산지역으로 보고 있다.⁵⁶⁾ 이는 탈해왕 대에 경주세력이 부산지역까지 장악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까닭으로 보인다. 초기기록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선석열은 신라 상고왕통의 기년을 수정론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거칠산국이 신라로 복속되는 시기를 3세기 후반대로 보았다.⁵⁷⁾ 대개 문헌사학자들은 이 기사를 『삼국사기』의 편년 그대로 보지는 않

54) 『삼국사기』 권44, 열전 4 거도전,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技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55) 백승욱, 「변·진한 및 가야·신라의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77쪽.

56) 이종욱,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1982, 21쪽, 225쪽.

57) 선석열,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131쪽.

는다. 그러나 이를 주요 근거로 하여 부산지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다. 백승충은 부산지역의 신라 편입 시기를 4세기 중반 이후로 보고 있으며,⁵⁸⁾ 주보돈은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⁹⁾

유우창은 『일본서기』 계체기 23년 4월조에 보이는 ‘多多羅原’을 부산의 다대포에 비정하고, 신라 장군 伊叱夫禮智干岐(이사부)가 다다라원을 점령하는 529년을 시점으로 서서히 신라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⁶⁰⁾

한편, 신경철은 신라의 거칠산국 병합 기사를 5세기 중엽 금관가야(남가라)가 친신라화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⁶¹⁾ 복천동고분군의 문화적 양상이 5세기 중엽이 되면 신라화 된다는 점에서 신라세력이 부산지역에 정착하는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보는 논리이다.

김두철은 일부 문헌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산(복천동고분군)의 4세기 대 신라 편입설에 대해 반박했다.⁶²⁾ 그는 5세기 전반 대까지 부산과 경주의 정치세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물질 문화면에서 복천동 세력이 경주세력보다 우월하였던 집단으로 보았다. 최근 그는 부산지역이 경주화되는 시점을 복천동 10·11호 단계인 5세기 2/4분기 후반대로 보았던 것을 수정·보완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⁶³⁾ 그리고 고대 부산지역이 4세기 중엽 경에 이미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신라사 중심의 관점에서 잘못 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4세기 대 부산은 김해와 함께 전기가야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으며, 400년 고구려

58) 백승충,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 『釜山史學』 19, 1990, 59쪽.

59) 주보돈, 「4~5世紀 釜山地域의 政治의 方向」,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487쪽.

60) 유우창, 「고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독로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190~191쪽.

61) 신경철,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金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 19, 1995, 46쪽.

62) 김두철,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가야에서 신라로-」, 『항도부산』 19, 2003, 35쪽.

63) 김두철, 위의 논문, 2003, 38쪽.

군 남정 이후 5세기 중엽 경 신라(경주)로 영남의 패권 중심이 옮겨감으로써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역의 독자세력으로서 고총고분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다.⁶⁴⁾ 고총이 축조되던 시기까지는 독자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과의 연속성 및 연산동고분군 출토의 유물 양상의 검토를 통한 것으로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의 정치적 성격과 신라 편입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⁵⁾ 문헌기록은 그 자체가 어느 시기의 기록인지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고, 고고학적 양상 또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굴 정비된 연제구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조영시기 및 유구와 유물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가야 세력이 6세기 전반 대까지 독자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산동고분군은 인근 복천동고분군 축조 세력이 고총 입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묘역을 연산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⁶⁶⁾ 복천동고분군을 축조한 세력과 연산동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은 동일 정치체인 것이다. 연산동고분군 가운데 주 능선부 고총의 조영 시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이며, 매장 주체부의 구조는 수혈식석곽, 유물은 대부분 신라 문화적 요소를 띠지만 蓮山洞式이라 할 수 있는 요소도 보이고 있다.⁶⁷⁾ 정치체는 다르

64) 김두철,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 「연산동고분군과 고대부산」, 『향도부산』 34, 2017, 17쪽.

65) 백승욱, 앞의 논문, 2010, 80쪽.

66) 申敬澈, 「釜山 蓮山洞 8號墳 發掘調査概報」, 1987, 51쪽 ; 「삼한·삼국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권, 1989, 415쪽. 최종규,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1, 152쪽.

67)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고분군(蓮山洞古墳群)-(고총고분기초조사)-』, 2012.

지만 문화의 동질성은 가질 수 있음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사실 연산동고분군의 발굴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논점이 되어야 할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 현 학계에서는 복천동고분군을 비롯한 부산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부산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는 5세기 중엽 무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5세기 후반 이후 조성된 연산동고분군의 피장자는 신라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연산동고분군의 규모와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고충의 피장자는 이 시기 이 지역 최고 지배자임에는 틀림없다. 이들의 앞선 세대는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연맹하여 한때 임나가라(=남가라=가락국=금관가야)를 이루어 가야전기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존재했었다. 연산동고분군의 피장자 및 축조세력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연산동고분군 고충 조영이 끝나는 6세기 전반까지 여전히 지역의 수장으로서 독자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충의 축조와 중단 자체가 그 증거로 생각한다. 유물의 양상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 지역과 신라와의 대외 관계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야의 역사는 가야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야만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광개토태왕릉비문 경자년(400)조에 보이는 ‘任那加羅’를 남가라(=가락국=금관가야)임을 고증하고, ‘任那加羅 從拔城’의 위치를 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盍山城 주변 일대로 비정해 보았다. ‘任那’에서의 ‘任’은 ‘南方’을 가리키는 말임을 『史記』, 『漢書』, 『後漢書』, 『晉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대 중국인들

의 ‘任’=‘南方’ 인식은 고구려인들도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능비문의 찬자가 ‘任那加羅’라 한 것은 ‘남쪽에 있는 加羅’를 의미하고 서술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安羅人戍兵’에 대해서는, ‘羅人을 안치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하였다. 羅人은 신라인이 아니라 고구려 군대로 보았다. 고구려군이 성을 정복한 후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인의 시각에서 그들 중심으로 서술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고구려 군대는 倭賊을 쫓아 남쪽 바닷가에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점령지에 그들의 군대를 안치시켰다. 비를 세운 고구려 장수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선왕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따라서 비문에 세 번이나 새겨 빛내고자 했던 것이다.

고대 부산 지역은 신라와의 접경지였다. 따라서 신라와는 언어와 문자, 생활습속 등에서 매우 유사했다. 문화의 동질성은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들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에 나타나는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고대 부산 지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학계 일각에서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이 되는 시기를 4세기대로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정치적 복속여부를 논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연산동고분군의 피장자는 당시 이 지역의 수장이었다. 고총고분의 조영은 그 자체가 지역 수장의 세력 과시용이다. 고대 부산을 거점으로 존재한 세력은 신라와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신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분 등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신라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부산 지역에 신라 문화적 양상이 보이는 시기를 바탕으로 정치적 복속 시기를 해석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세기 전반 대까지 조영된 연산동고분군은 당시까지 부산에 독자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산의 가야 세력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는 그 이후 어느 시기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발굴보고서 및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 학술도록』, 2019.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 『蓮山洞 M3號墳-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2014.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 『蓮山洞 M7·M10호분·연산동 고총고분군 3차 조사-연산동 M8호분-1987년도 조사-』, 2014.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수영구, 『慶尙左水營城址-북문지 일원-』, 2016.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盍山城址 I-2017년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2. 저서 및 논문

김두철,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가야에서 신라로-』, 『항도부산』 19, 2003.

_____,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2013.

_____,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_____, 『연산동고분군과 고대부산』, 『항도부산』 34, 2017.

_____, 『부산은 언제까지 가야였는가?』,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18.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1966.

_____,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1988.

김정학,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 1983.

김태식,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 김태식,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 김현구,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1993.
- 남재우, 『安羅國史』, 해안, 2003.
- 박진석,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1993.
- 백승옥, 「가야사 성구성과를 통하여 본 부산의 고대사」, 『향도부산』 18, 2002.
- _____,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 2003.
- _____,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 _____,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 34, 2014.
- _____, 「‘임나일본부’의 소재와 등장 배경」, 『지역과 역사』 36, 2015.
- _____,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4, 2019.
- 백승옥·백승충·선석열,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2015.
- 백승충,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 『釜山史學』 19, 1990.
- _____,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삼한 시대 부산 지역의 정치 집단과 그 성격:변진 독로국을 중심으로」, 『향도부산』 18, 2002.
- 선석열,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 _____,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향도부산』 18, 2002.
- _____, 「6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치와 연산동고분군」, 『향도부산』 34, 2017.
- _____, 「삼한시대 독로국 - 동래인가 거제인가?-,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18.
- 신가영,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재해석」, 『東方學志』 178, 2017.
- 신경철, 「釜山 蓮山洞 8號墳 發掘調査概報」, 1987.
- _____, 「삼한·삼국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권, 1989.
- _____,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金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 19, 1995.
- 연민수,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東國史學』 21, 1987.
- _____,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對外關係」, 『韓國古代史研究』 10, 1995.
- 유우창,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향도부산』 23, 2007.
- _____,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향도부산』 34, 2017.
- _____, 「고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독로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 劉勰 著, 崔東浩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 왕인문화연구소 편, 『4~5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왕인박사』, 사단법인 왕인박사현창협회, 2017.
- 李永植,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白山學報』 32, 1985.
- _____,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 _____, 『가야 제국사 연구』, 생각과종이, 2016.
- 이중옥,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 주보돈, 「4~5世紀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 천관우, 「復元加耶史(중)」, 『文學과 知性』 29, 1977.
- _____,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 최종규,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1.
- 허재혁, 「居漆山國의 成長과 發展」, 『伽倻文化』 18, 2005.
- 홍보식, 「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 王健群 著, 임동석 역편,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5.
- 高寬敏,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1990.
- 管政友,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1891.
- 那珂通世,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1893.
-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 川崎晃,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古代國家の歴史と伝承』, 吉川弘文館, 1992.

| Abstract |

The location of 'Imnagara(任那加羅)'s Jongbalseng(從拔城) and the ancient Busan.

Beack, Seoung-Ok

This paper ascertains Imnagara(任那加羅) in the great king Gwanggaeto's tombstone inscription in Gyeongjanyeon 400 is Namgara(= garakguk) and defines the location of its Jongbalseong(從拔城) to district of Baesanseong(盂山城) located in Yeonsan-dong, Yeonje-gu, Busan. It is confirmed that 'Im(任)' in 'Imna(任那)' means South(南方) through 'Sagi(史記)', 'Hanseo(漢書)', 'Hoohanseo(後漢書)', and 'Jinseo(晉書)'. It was believed that the people of Goguryeo were fully aware of this perception of 'Im(任)'='South(南)' by the ancient Chinese. This paper saw the editor of epitaph meant 'Gara(加羅) in south' when it said Imnagara(任那加羅). Regarding 'Anrainsubyeong(安羅人戍兵)', it was interpreted to enshrine 'Rain(羅人)' to keep it safe. Rain(羅人) was not seen as the army of Silla(新羅), but as the army of Goguryeo(高句麗). It was seen that the Goguryeo army had conquered the castle and had their army stationed.

The ancient Busan area was a border with Silla. Therefore, it was very similar to Silla in language, text, and daily life. It was also the reason why this ancient Busan area was often regarded as to be subjugated to Silla. However, the Yeonsandong Tumulus Cluster, which was established until the early 6th century, proves that there was a unique group in Busan until then. The period when Busan's Gaya forces were brought into Silla would be sometime in the early 6th century.

Keywords: Great king Gwanggaeto's tombstone inscription(Neungbimun), 'Imnagara Jongbalseong(任那加羅 從拔城)', 'Anrainsubyeong(安羅人戍兵)', Ancient Busan